

# 20만명 몰린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2천여대 역대급 드론쇼 화려한 피날레

이틀간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서 정원에 콘텐츠 더해 관람객 몰려 폐막식 관객 10만명 황홀한 가을밤

역대급 규모의 드론쇼가 순천의 가을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총 2025대의 드론으로 연출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바뀔 때마다 10만여명의 관객들은 '우와'라는 감탄과 함께 드론쇼에 흠뻑 빠져들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순천 국가정원의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이하 페스티벌)'의 폐막 행사는 3일 무한한 상상력을 남기며 대미를 장식했다. 당초 지난 1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페스티벌은 우천 관계로 2일로 단축됐으며, 페스티벌 첫날 계획됐던 감동의 드론쇼는 폐막식 피날레로 바뀌었다. 이를 뒤로 연기된 만큼 드론쇼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커졌으며, 폐막식 관객 10만명이라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측의 추산이 이를 입증했다.

이틀간 총 20만명을 기록한 페스티벌은 문자 그대로 대성공이었으며, 폐막식에서 진행된 비전 선포식과 드론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전선포식과 애니메이션 드론쇼는 '콘텐츠 선물상자' 컨셉으로 꾸며진 오천그린광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됐다. 무엇보다 한쪽 방향으로는 바라보는 무대가 아닌 360도가 관람석이 되는 색다른 무대 연출이 관객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의적 영감과 상상력이 담긴 콘텐츠 상자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피날레 행사가 시작됐다. 기존 폐막식의 딱딱한 형식을 완전히 탈피하고, 뮤지컬 형태의 '글로벌 문화산업 메가 순천' 비전을 선언했다.

이어 열린 애니메이션 특화 드론쇼는 각각의 OST에 맞춰 돌리·까지·윌리를 찾아서 등 다양한 캐릭터를 하늘 위에 수놓아 역대급 장관을 연출했다. 관객 모두가 공감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2025대의 드론이 투입된 드론쇼가 지난 3일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의 대미를 장식했다. <순천시 제공>

피날레 행사에만 10만명의 관람객은 감동의 연속이었다.

이날 폐막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조직위원 마카엘 마린 총괄 디렉터가 참석했다.

마카엘 마린 총괄 디렉터는 "순천에 와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굉장한 경험이었으며, 순천을 꼭 다시 찾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순천시는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행사로 풀어냈으며, 비즈니스 마켓을 통해 기업들이 몰려들고 순천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윤태호 작가와 에릭 오 감독이 전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국의 예비 애니메이션과 작가 지망생들의 발걸음까지 사로잡았다. 시는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도심 한가운데 자리

한 정원에 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집시킨 차별화된 기획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6만평 규모의 정원에 열기구·캠핑·닉·애니메이션 상영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꾸민 새로운 광장문화를 선보였다는 평도 이어졌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마켓에는 국내외 콘텐츠 기업 55개사(국내 35, 해외 20)가 방문했다. 순천시 투자유망 기업을 비롯한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베트남 등 국내외 기업들은 네트워킹 파티, 기업 설명회 및 포럼, 1:1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며 순천의 미래를 응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 첫 회로 개최하는 콘텐츠 페스티벌은 세계 최초로 정원에서 시도하는 행사였던 만큼 순천 미래의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기반한 교육·기업 유치 등을 문화산업 생태계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군 직거래 장터 '팜파티' 큰 호응

곡성군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터인 '팜파티'를 지난 3일 삼기면 통명산체험마을에서 개최했다.

'농촌과 농부, 소비자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보였다.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인 '팜파티'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이다.

곡성군과 전남농업기술원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역명품인 미니찰옥수수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온·오프라인 소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찰옥수수와 토란을 구워먹는 장작구이, 토란 인절미 떡매치기, 막걸리 시음,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산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팜파티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곡성 농산물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며 "각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터인 '팜파티'를 지난 3일 곡성군 삼기면 통명산체험마을에서 열렸다. <곡성군 제공>

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에 관심을 갖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멜론·딸기·블루베리 등 곡성의 또 다른 농산물도 애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2일과 23일에도 와사비를 주제로 옥과 와사비체험센터에서 팜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



보성군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개최한 '제20회 벌교꼬막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꼬막 비빔밥 1000인분 만들기'의 모습. <보성군 제공>

# 벌교꼬막축제 사흘간 11만명 찾았다

날배 타기·만원 꼬막 뷔페 인기

전남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인 벌교꼬막축제(이하 꼬막축제)가 지난 1일부터 3일간 방문객 11만 여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벌교갯벌에서 자란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인 '벌교꼬막'의 우수성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빨배어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얻었다.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 풍족한 축제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축제였다는 분석이다.

이날 축제의 주무대인 벌교읍 천변 일대에서 진행된 꼬막 비빔밥 1000인분 만들기를 시작으로,

꼬막 노래자랑·바퀴 달린 날배 타기 체험·특산품 판매·꼬막 무료 이벤트가 관광객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신선한 제철 꼬막을 이용해 운영된 '만 원 꼬막 뷔페'는 꼬막 탕수육·꼬막 구이·꼬막 전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 행사도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개막식을 알리는 초청공연과 함께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부스, 어린이제 동선 실내악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

2일 태백산맥문화관 16주년 개관행사에서는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진행돼 독자들과의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여순사건 유족에게도 이달부터 생활보조비 지급

여수시 2명에 매달 10만원씩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2명에게 이달부터 매달 10만원씩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여수시는 지난달 18일 제정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간 생존 희생자에게만 지급됐던 생활보조비 지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

모·자녀 등)과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에게만 지급되며, 해당자가 1명인 경우는 당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씩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시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오는 15일부터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생활보조비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

만 고령이 된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해 생활보조비를 유족에게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조비 지원이 더디게 진행됐지만, 마침내 이달부터 지급하게 됨으로써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도 대비해야 합니다

-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상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